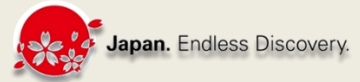


2026년 7월 1일부터



국제관광여행객세 세율이 3,000엔으로 인상됩니다.

여행객세 수입은 3개 분야에 활용됩니다.

①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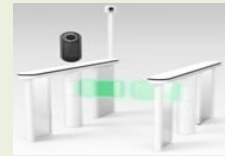
혼잡 완화 대책
(파크 앤 라이드 실증시험)



매너 위반 대책
(스마트 쓰레기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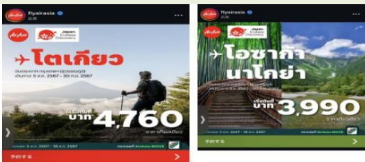


출입국 절차 간소화
(셀프 수하물 위탁기)



출입국 절차 간소화
(워크스루 게이트)

②일본의 다양한 매력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



일본 곳곳의 매력을 전하는
항공사 공동 광고



JNTO(일본정부관광국) 특별
페이지를 통해 원예박람회 정보 제공



현지 소비자 대상 여행박람회
참가 및 이벤트 개최

③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정비 등



역사적 자원의 개보수,
전신주 제거와 경관 개선
등을 통한 거리 환경 정비



지역과 관련된 문화재 등의
전시 시설 정비



등산로 등의 정비



중요문화재 공개
(구 미카사 호텔)

※상기는 2026년도 예산의 활용 사례(이미지)

국제관광여행객세(제도 개요) 자세한 내용은 일본 국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세율

일본 출국 1회당 3,000엔(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6년 6월 30일까지 발권된 항공권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인상 전 세율
(1,000엔)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원칙적으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티켓 요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본에서 출국하는 분들로부터 '국제관광여행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